+

농수산물 온라인 거래 '1조원 시대'…aT, 디지털 시장 견인

비대면 거래 통해 획기적 유통 혁신 주도 참여업체 전년比 39%·일 거래 77% ↑ 2030년 7조원 달성 목표 향해 본격 시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올해 거래액 1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aT는 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운영 중인

온라인도매시장이 올해 거래금액 1조원을 달성 했다"고밝혔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시공간의 제약 다. 없이 전국 단위의 비대면 거래가 가능한 세계 최 초의 도매시장으로 지난해 목표액 5천억원을 35 % 초과한 6천737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목표 1조원을 조기에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aT는 목표 달성을 위해 ▲부류별 MD(cm²상품 기획자)를 통한 거래 알선 ▲산지 팸투어 및 컨 설팅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 ▲시기별 특화상품

개발 ▲카카오톡·롯데온 등 플랫폼과의 협력으 로 대형 구매자 유치 등 다양한 전략을 추진했

그 결과 참여 업체 수는 전년 3천804개소에서 5 천272개소로 39% 증가했으며 일평균 거래금액 도 18억4천만원에서 32억6천만원으로 77% 상승

온라인도매시장 담당MD는 생소할 수 있는 온라인도매시장의 비대면 거래의 신뢰성 확보 를 위해 판·구매사 대상 거래가능 품목 알선, 산

지 팸투어 동행, 지원사업 1:1 설명 등 거래를 확 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기도의 온라인셀러 비케이물산 관계자는 "MD와 함께한 산지 팸투어 이후 우수 상품을 손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돼 거래 만족도가 높다"며 "앞으로도 거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T는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거래 금액 7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판매자 가입 요건을 완화해 농 업인과 유통업체의 참여를 확대했으며 현장 의 견을 반영해 청과·수산 등 79개 신규 품목을 추 가했다. 향후에는 거래정보 공개 확대, 거래중개 인 및 품질관리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홍뮨표 aT 사장은 "온라인도매시장 1조원 조 기 달성은 다양한 거래 주체가 직접 참여해 경쟁 과 효율성을 높인 혁신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합리적 가격으 로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건강한 유통 생태 계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KJB금융박물관, 지역 대표 공익 문화 공간 '우뚝'

광주은행본점 2층 '호남금융 발자취' 보존 지역민 대상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광주은행은 9일 "'KJB금융박물관'이 지역민 과 학생들에게 금융 교육과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공익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 고있다"고밝혔다.

2012년 광주은행 본점 2층에 문을 연 'KJB금

융박물관'은 호남지역 최초의 금융 전문 박물 관으로 광주은행의 역사와 함께 광주·전남 금 용의 발자취를 체계적으로 정리·보존하고 있

박물관은 '역사존'과 '화폐존'으로 구성돼 지 역 금융의 발전 과정과 한국 화폐의 변천사, 세 계 각국의 화폐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지역민의 염원으로 설립된 광주은행의 창립 배 경과 성장 과정도 함께 전시돼 있다.

전시 외에도 마켓 체험, 화폐 만들기 체험, 은 행원 체험 등 다양한 참여형 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쉽고 재미있게 금융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울러 별도로 마련된 금융교육실에서는 어 린이, 청소년,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눈높 이에 맞춘 금융교육을 진행하며 올바른 경제관 념과 합리적인 소비 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있 다.

광주은행은 박물관 운영과 더불어 '1사 1교 금융 교육'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중·고등학교와 결연을 맺고 직접 학교를 찾아가 학생 눈높이에 맞춘 금융 교육을 진행하며 청소년들이 올바른 금융 인식과 건전 한소비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광주은행 신충식 브랜드전략부장은 "광주은 행 KJB금융박물관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을 보 관하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민들과 함께 금융의 가치를 배우고 나누는 곳"이라며 "앞으로도 다 양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많은 분들이 금융을 친근하게 느끼고 지역사회와 함 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가 최근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겨울철 주거환경 개선을 위 한홈케어물품지원'행사를실시했다. 〈산인공 전남지사 제공〉

산인공 전남지사, 외국인 근로자 겨울나기 지원

고흥 어업 근로자 대상 침구 등 제공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는 9일 "지난 7일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겨울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홈케 어 물품 지원'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 (E-9)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현재 17개 국 가 근로자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서 근무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취약한 근로환경에 놓인 고흥 지역 어업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홈케 어 물품(침구류) 등을 20가구에게 지원함으로

써 안전하고 따뜻한 주거환경 개선 및 사업장 내 애로해소 지원 등의 목적으로 마련됐다.

박태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장은 "이 번 지원이 낯선 환경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 자들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외 국인 근로자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보 낼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상생과 포용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남지사는 지난여름 온열질환 예방 등 을 위한 폭염예방키트, 자율점검표 등을 170여 개 사업장 23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배부했 으며 향후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안태호기자

한전KDN, 베트남 전력그룹사 초청 기술교류회

지난 2012년 광주은행 본점 2층에 문을 연 'KJB금융박물관'이 광주은행의 역사와 함께 광주·전남 금융의 발자취를 체

전력 분야 발전 방향 공유

시 소재 본사 일원에서 베트남 전력 그룹사(EV N, EVNICT) 일행을 맞아 에너지 분야 교류 협 력의시간을가졌다"고밝혔다.

계적으로 정리·보존하고 있다. 사진은 KJB금융박물관 입구 모습

뚜안) EVN(베트남 전력공사) 과학기술 디지 털전환국 부국장과 NGUYEN TRUONG GIA

NG(응웬 쯔엉짱) EVNICT(베트남 전력공사 I CT센터) 부사장을 비롯한 방문단 12명이 한전 한전KDN은 9일 "최근 광주전남공동혁신도 KDN을 찾아 홍보관 관람과 환담, 기술교류회 등이 진행됐다.

기술교류회는 ▲한전KDN의 중장기 VISION ▲R&D 현황과 미래 ▲전력분야 사이버보안 ▲E 이날 행사는 TRAN QUOC TUAN(짠 꾸억 RP등 한전KDN의 중장기 계획과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과 베트남의 전력 분야 발전 방향 을 공유하는 실무회의 성격으로 중점 진행됐다.

한전KDN은 EVN, EVNICT와의 업무 협약과 수차례 방문 교류 등을 통해 장기적인 양국 간 우호증진 및 산업 분야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으 며 베트남 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한전KDN 관계자는 "연초 EVN과의 업무 협 약 이후 진행되고 있는 수차례의 교류 협력이 양국 간 전력분야 기술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상생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전력IC T 전문 기업에서 에너지ICT로의 변화를 모색 하는 한전KDN의 경험이 베트남 에너지 산업 의 혁신적 변화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

+





